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년 2길 6번지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음 8월 8일) 제19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2015년 착공해 건립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가 26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은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미생물 산업 연구시설 정읍에 등지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식

국비 150억원 투입 2015년 착공 연구실험실 등 들어서
농가 미생물제품 개발·공급, 품질관리 애로 해결 추진
전북혁신도시 농생명 기관 등과 연계 산업 허브 될 듯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생물 산업을 이끌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들어섰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유치, 지난 2015년 착공해 건립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가 26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알렸다.

정읍 우도농약의 신명남 사직 공연에 이어 시작된 이날 개소식에는 이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 국회 김중희 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성 정읍시의회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현판식 등이 열렸다.
이 센터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전북대가 유치하면서 추진된 것.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으로 미생물 산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화 기반이 열악함에 따라 유망한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150억 원의 국비와 10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2015년 착공해 1만4,854㎡ 부지에 연건평 6,525㎡,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는 사무행정동을 비롯해 시험생산시설, 연구실험실, 창업보육실 등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자체와 산업체, 농가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개발과 공급, 품질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정책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생물 농약을 비롯해 비료, 사

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환경개선제 등의 제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농생명 분야에서 세계 Top100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북대의 연구력과 센터 옆에 구축돼 있는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그리고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어 앞으로 국내 미생물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가습기나 살충제 파동 등 화학제품 부작용 문제가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대체한 미생물을 활용한 정부 R&D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문을 연 센터가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생물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 4면 - 아시아 대표 민간도시정책 소개
- 6면 - 개소 1년 전주시금융복지심담소

내년 전라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에 힘 합쳤다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활성화 결의 맺어
11월 선포식에 이어
릴레이 순회홍보 통해
전국적 분위기 조성

호남권 3개 시도(대표기관 전남) 관광협의체인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가 26일 전남도립도서관에 모여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추진하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내년은, 1018년 고려 현종때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처음 명명하고 10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지난 3월 천년 역사를 재정립하고 전라도인의 자존감 회복과 전라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30개의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2018 전라도 방문의해를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9월초 확정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호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

중 할 것을 결의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선포식을 갖고, 이어 부산, 대구 등 5개 시도에서 릴레이 순회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광고도 제작해 지상파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 방문의 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다양한 이벤트와 관광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해 이를 활용한 명품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 전라GO!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전라도를 탐방하는 '전라도 희망 탐사단'은 선포식날 출정식을 갖고 2박 3일 전라도를 여행하게 되며, 2018년에는 청소년을 초청해 전라도의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탐험단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문의 해는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이벤트로 방문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의 문화와 여행을 체험해 지역관광에 활력이 되도록 호남권 관광인이 힘을 합쳐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 도시계획위, 고흥 폐기물 전기발전시설 '부결'

전주시 팔복동 일대에서 추진하려던 '폐기물 고흥연료(SRF) 이용 전기발전 사업'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요구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데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업체의 신청을 부결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의 심의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 있는 B업체 역시 1일 72t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연료로 2650Kw의 전기 생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발전소 설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되면 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는 물론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반디불

무주 반디불

자연과 생명의 등불·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농협에는
: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믿음이 있습니다.
: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농협 무주군지부장 이정환
무주농협동조합장 곽동열
구전농협동조합장 양승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